

# 총학선거 이종열-강태종 학우 당선

### 총 유권자 중 50.29%가 투표 참여, 41.8%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

지난 28일 치러진 17대 학부 총학생회 장단 선거에서 기호 3번 '아색기가'의 이종열 학우(산공 00)와 강태종 학우(응수 00)가 회장단으로 당선되었다(당선자 인터뷰 4면). 28일 하루동안 치러진 이번 총학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2255명 중 중복된 12표를 제외하고 113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율이 50.29%에 이르러 유권자 중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는 선거 규정을 간신히 채웠다. 개표 결과 기호 3번이 474표로 득표율이 41.8%에 달했으며, 기호 1번 '감생회'의 전의주, 소희선 후보는 369표로 32.5%를, 기호 2번 '최.강.'의 최상덕, 강대성 후보는 279표를 얻어 득표율 24.6%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2년만에 치러진 경선이었으며, 후보가 3팀이 출마해 유례없이 활발한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정책자료집과 포스터를 이용한 공약 홍보는 물론, 각 선거본부의 독특한 의상, 로고송, 각종 자보 등을 이용해 후보의 존재와 색깔을 부각시키려는 이미지 홍보도 활발했다. 대다수 학우들은 "오랜만에 이런 활발한 선거운동을 보는 것 같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선거운동이 과열돼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지, 혹은 선거가 끝난 뒤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관련 포스터나 스티커 등을 제대로 철거할 것인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1호관 시청각실에서 17대 학부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가 열



선거 전에 마련된 총학 후보 공청회에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렸다. 이번 공청회는 선관위가 주최하고, 본지와 카이스트 헤럴드, 교내 방송국인 VOK가 후원했으며, 패널은 각 언론기관의 대표자 3명이 맡았다. 아색기가 선본의 부총학생회장 후보였던 강태종 학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아색기가 선거운동본부의 김창수 학우가 대신 참석했다. 3팀이 치르는 경선이었던 만큼, 공통질문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로 이루어졌고 개별 질문으로는 각 후보의 색깔을 드러내는

공약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패널과 방청객들은 기호 1번의 학점 지우기 제도와 기호 2번 선본의 meal plan과 전자화폐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학우는 40명도 채 되지 않아, 매년 제기되어 온 참여의식 부재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강은진 기자 jinius@kaist.ac.kr

## |해설|

### 강의 평가 점검

최근 우리 학교의 강의평가 방식이 이번 학기부터 서면질의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교무처의 공고가 있었다. 온라인상의 질의방식은 웹카이에 접속하여 강의평가 항목에 들어가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설문 문항은 예전과 동일하다.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학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조건도 새로 생겨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실시하던 강의평가에서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강의평가 결과 입력에 있어서 수작업으로 인한 시간 소요가 많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기

###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강의 평가 선진화 필요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요즘 대학들의 일반적인 추세이고, 이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점수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강의평가 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강의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학내 여론 때문일 것이다. 학생과 교수들은 예전부터 강의평가가 수업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평가결과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 학생들의 불성실한 강의평가 태도 등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5면에 이어짐

## 지면안내

- 제 17대 학부 총학생회 인터뷰 4
- 2002년 우리 학교 돌아보기 8
- 반미감정, 반미문화 10
- 생태경제학은 무엇인가 12



창간/ 1988년 2월 1일  
발행인/ 홍창선 인쇄인/ 김규석  
주간/ 이상경 편집장/ 정세환

## |기획특집|



### '2002년 돌아보기'

Open KAIST는 외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사진제공 홍보협력팀)

월드컵 열풍으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2002년 한 해. 우리 캠퍼스 내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연말이 다가왔다.

지난해부터 공사에 착수한 종합 네트워크 강의동과 정문술 회장의 기부금으로 지어지는 정문술 빌딩, 동문창업관과 바이오모델 시스템과 크 등 캠퍼스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카이스트-포항공대 교류전, 석림태울제, 여름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문화제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캠퍼스에서 축제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부 식당의 운영방식이 학우들과 업체의 많은 협의 끝에 점심과 저녁 식사의 배식 방법이 자율배식/일품으로 변경되었고, 매점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교내 먹거리 환경 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을 비롯해 학교 내에서 이뤄진 작은 행사까지 많은 변화를 시도했던 올 한 해를 한 달 여 남겨둔 시점에서 분야별로 일년을 되돌아 본다.

관련 기사 8·9면  
연지연 기자 aemir@kaist.ac.kr

## 카이스트 문학상 당선작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 8회 카이스트 문학상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응모된 작품은 총 38편이었으며 과학평론에는 응모작이 없었습니다. 심사 위원으로는 최혜실 교수(소설 부문), 박수연 교수(시 부문), 조애리 교수(수필 부문)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당선작은 신년호에 실릴 예정이며, 시상식 일정은 수상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소설 부문

가작 '인류의 행동'  
무학과 2002학번 김디모데

### 시 부문

당선작 '버스는 간다'  
무학과 2002학번 이지왕  
가작 '하관'  
물리학과 2000학번 민주해

### 수필부문

당선작 '꿈을 찾아서'  
수학전공 2000학번 김유미  
가작 '누나'  
화학과 박사과정 최신혜